



환경공단-아프리카, 물·위생환경기구 환경협력 시동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 등 공동 해외협력사업 발굴

한국환경공단이 아프리카 환경시장 개척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지난 22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아프리카의 물·위생 관련 대표 기구인 아프리카 물·위생환경기구(WSA, Water Sanitation for Africa)와 아프리카의 낙후된 위생과 물 분야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을 위한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는 아프리카의 물, 위생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1988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나이지리아, 가나 등 아프리카 3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환경공단이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세계 환경시장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와 우수한 기술력을 평가받은 것으로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약이 성사됐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G-7) 관련 지표>

지역	안전한 식수 이용비율(2010년) (전체인구 대비 %)	위생시설 이용비율(2010년) (전체인구 대비 %)
전 세계 평균	88	6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61	31
동아시아	90	66
남아시아	90	38
유럽 및 중앙아시아	96	84
중남미	94	79
중동 및 북아프리카	89	88

※ 자료출처 : World Bank(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환경공단과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환경정책 및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공공 환경보건 서비스, 물 환경 개선 지원, 해외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 등에서 협력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공단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위생 분야 외 기후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산업 분야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공단은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와의 협약 체결로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아프리카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 기술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G-7) 관련 지표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세계 인구 대비 평균 88%가 안전한 식수를, 63%의 사람들이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도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은 전체 인구 대비 61%가 안전한 식수에, 31%만이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약 2억 5,000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오염된 물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공단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미국, 영국 업체 등이 주도하고 있는 약 12조원(112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물 환경시장에 첫 발을 디게 됐다.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는 환경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난 10년 간 아프리카 회원국 국민 2,200만 명이상이 물과 위생 분야에서 생활환경 개선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공단 등 세계 각국과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2015년까지 약 5,000만 명 이상으로 실질적인 수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아프리카는 미래의 보고로

환경시장에 있어서도 선점이 중요하다.”며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개발과 업무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환경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환경공단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㉔

한국환경공단 대륙별 해외사업 추진현황

대륙	진출 국가 현황
아시아(10개국)	· 미얀마(폐기물), 카자흐스탄(폐기물), 몽골(폐기물, 수질, 스리랑카(폐기물), 방글라데시(수질), 캄보디아(폐기물), 인도네시아(폐기물, 수질), 라오스(대기), 베트남(폐기물, 수질), 중국(폐기물, 수질)
중남미(4개국)	· 페루(수질), 에콰도르(수질), 칠레(대기), 코스타리카(폐기물)
중동(1개국)	· 사우디아라비아(수질)
아프리카(3개국)	· 튀니지(대기), 이집트(폐기물), 모잠비크(수질)

아프리카 물·위생 환경기구(WSA) 개요

조직	· 이사회 : 32개 회원국 물·위생 장관으로 구성. 조직 운영의 정책 결정, 기술지원위원회 보고서 승인, 집행장관 임명, 예산·재무·감사 보고서 승인 · 기술지원위원회 : WSA 회원국과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WSA에 전략 및 기술지원 · 집행사무국 : 이사회의 권한아래 운영되며 WSA 운영 등 총괄 집행
서비스 분야	· 재단기금 확보 · 수익사업 개발 및 수행 · 정책 및 기술지원
비전/미션	· 빈약한 물·위생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 개발
목표	· 2015년까지 아프리카 5,00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공급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의 12.5%)
회원국	·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Gabon, Ghana, Guinea, Guinea-Bissau, Ivory Coast, Liberia, Madagascar, Mali, Mauritania, Niger, Nigeria, Rwanda, Senegal, Sierra Leone, Togo 등

WSA : Water Sanitation for Africa